

한국인의 이중 사회정체성과 내집단 투사, 남북한 통일태도 간 관계*

이 하 연¹ 권 영 미¹ 서 정 길¹ 박 주 화² 최 훈 석[†]

¹성균관대학교

²통일연구원

본 연구는 상위수준 한민족 범주와 하위수준 국가(남북한) 범주로 구분되는 증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상위범주-하위범주 동일시 수준 간 상호작용과 내집단 투사, 남북한 통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한국인들이 남북한을 포섭하는 공동 상위범주인 한민족에 강하게 동일시하더라도 동시에 하위범주인 남한에 강하게 동일시할 경우, 남한이 북한보다 한민족의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집단이라고 지각하는 내집단 투사가 발생하며, 내집단 투사는 통일태도를 부정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해 내집단 투사를 완화하는 기제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정체성 중심성의 역할을 검증했다. 인구비례할당 표집으로 수집된 한국 거주 성인 1,6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남한사람들이 한민족과 남한에 동시에 강하게 동일시할수록(즉, 이중 정체성이 우세할수록) 내집단 투사 수준이 높았으며, 이중 정체성은 내집단 투사를 매개로 통일태도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또한,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하는 효과는 구성원들이 하위범주 정체성을 상위범주 정체성보다 중시할 경우 유의했고, 하위범주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할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 관계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서 증소된 사회정체성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는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이중 사회정체성, 내집단 투사,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 남북한 통일태도

* 본 논문은 통일연구원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의 조사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 2022,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은 국가, 인종, 직업, 성별 등 동시에 다양한 사회범주에 속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체성을 형성한다(Turner & Reynolds, 2012). 한국인들 역시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정체성(민족정체성)과 대한민국(남한) 국민으로서의 사회정체성(국가정체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남북한 성원들은 한민족으로서의 역사 및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국가의 정치 및 사회체계 아래 고유한 정체성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국인들의 사회정체성 구조는 남한사람들이 자신을 한민족의 일원으로 지각함과 동시에 북한을 외집단으로 지각하는 이중적인 인식의 토대를 이룬다(박주화 등, 2019, 2020). 국내에서 수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73%가 북한을 '같은 민족이자 다른 국가'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8).

한국인들의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은 남북관계나 통일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훈석 등, 2019; Jung et al., 2016). 이 방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한민족동일시 또는 국가동일시의 단순효과를 각각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한민족동일시와 국가동일시 각각의 단순효과뿐만 아니라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는 한국인들이 지니는 한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은 상호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음에 근거한다(예: 최훈석 등, 2019; Jung et al., 2016). 다중 사회정체성을 이루는 사회범주에 대한 동일시는 서로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들이 본인이 속한 대학과 교수라는 직업군 두 범주 모두에 강하게 동일시하거나 동일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둘 중 하나에는 강하게 동일시하지만 다른 하나에는 약하게 동일시하는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이 현상은 한민족과 국가로 구분되는 사회정체성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현되며, 두 가지 사회범주가 사고처리의

참조점으로 사용되는 양상에 따라서 집단 간 인식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연구할 때 민족동일시와 국가동일시라는 두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성원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이하 통일태도)에서 한민족동일시와 국가동일시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축소된 구조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하여, 사회정체성의 축소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외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간주되어 온 내집단 투사(ingroup projection)의 매개역할을 조명하였다. 특히 사회정체성이 인지, 감정, 가치평가 등 다요인으로 구성됨(Ellemers & de Gilder, 2021)을 토대로 사회정체성의 감정 요인인 동일시(identification)와 인지 요인인 중심성(centrality)을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전제하고, 한민족동일시와 국가동일시 간 상호작용효과에서 정체성 중심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수들의 선정 근거와 유관 연구를 논의하고 연구모형의 설정 근거를 제시한 다음,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남북한 관계에서 이중 정체성과 내집단 투사

다양한 사회범주에 속한 개인이 지니는 두 가지 이상의 사회정체성은 위계적으로 서로 동일한 수준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 어느 한 범주가 다른 한 범주를 포섭하는 축소된 구조(nested social identity, Crisp & Hewstone, 2007)를 이루기도 한다. 남북한은 단일민족국가였던 공동체가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남북한 국민의 국가정체성은 상위수준의 민족정체성에 포섭되는 위계적 구조를 이룬다. 즉,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남한 국민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이 상위수준에서 한민족으로서의 사회정체성에 내재하는 층소구조를 이룬다(최훈석 등, 2019; Jung et al., 2016).

층소된 사회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하위범주 정체성이 우세할 때보다 공동의 상위범주 정체성(공동내집단 정체성; common ingroup identity)이 우세할 때 외집단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우호적이다(Gaertner et al., 1993). 이는 외집단을 상위수준에서 공동 내집단으로 재범주화함으로써 내집단 선호가 작동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론과 일관되게, 하위범주 정체성이 우세할 때는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 등이 발생하는 반면, 상위범주 정체성이 우세할 때는 상위수준 공동체에 속하는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행동, 집단 간 통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이 관찰되었다(참조: Dovidio et al., 2007). 남북한 관계에서 층소된 사회정체성의 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남한사람들의 국가(대한민국)동일시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예측한 반면(김혜숙 등, 2011), 남한사람들에게 ‘한집단’ 범주(예: ‘우리’, ‘한민족’)를 접화했을 때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관찰되었다(유연재, 김혜숙, 2000). 또한, 남한사람들의 한민족동일시가 남북한 화해 및 통일 지지를 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국가동일시는 남북한 화해 및 통일 지지를 예측하지 못했다(최훈석 등, 2019; Jung et al., 2016).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정체성의 효과를 내집단에 대한 애착 및 동일시의 효과로 규정하고, 하위범주 또는 상위범주 동일시 각각의 주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층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을 하위범주와 상위범주에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동일시할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이처럼 층소된 구조에서 구성원들이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에 모두 강하게 동일시하는 경

우 이중 정체성(dual identity)을 지닌 것으로 정의한다(Dovidio et al., 2007; Gaertner et al., 1989). 구성원들이 이중 정체성을 지닌 것은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사회정체성이 모두 우세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표상하는데 있어서 상위범주 속성과 하위범주 속성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지각이 발생하며(예: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한민족의 속성과 일치하는가?”), 이 과정에서 하위수준 내/외집단 간 상대적 비교가 이루어진다(Turner, 1987).

이러한 상대비교에서는 구성원들이 하위범주 내집단의 고유한 속성을 상위범주의 ‘전형적(prototypical)’인 속성인 것으로 투사하여 지각하는 현상, 즉 하위범주 내집단이 공동 상위범주를 가장 잘 대표하는 이상적인 집단이라고 지각하는 ‘내집단 투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Mummendey & Wenzel, 1999). 이를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면, 남한사람들이 한민족은 어떤 민족인지를 떠올릴 때 남한사람들의 고유한 속성(예: 친절하다)이 북한사람들의 고유한 속성(예: 순박하다)보다 한민족의 전형적인 속성이라고 지각할 수 있다(상위범주에 대한 하위범주의 상대적 전형성 지각). 또 다른 한편, 전형성 지각과는 별개로 상위범주를 구성함에 있어서 하위범주가 지닌 속성이 ‘필수적(indispensable)’인지에 관한 지각도 이루어진다(Verkuyten et al., 2014). 이는 ‘상위범주에 대한 불가결성 지각’에 해당한다. 전형성 지각과 마찬가지로 불가결성 지각에서도 외집단보다 내집단의 상대적인 불가결성을 높게 지각할 수 있으며(상위범주에 대한 하위범주의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 이 경우 역시 내집단 투사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남한사람들이 한민족은 어떤 민족인지를 떠올릴 때 남한사람들의 고유한 속성이 북한사람들의 고유한 속성에 비해서 한민족을 규정하는 데 전형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지각하는 것, 즉 남한이 북한보다 한민족의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집단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내집단 투사에 해당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집단 투사의 두 지표인

상대적 전형성과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은 서로 상관은 있으나(상관계수 .50 내외), 각각 외집단 태도 및 행동에 고유한 예측력을 지니는 독립적인 구성개념이다(Ng Tseung-Wong & Verkuyten, 2010; Verkuyten et al., 2014). 또한 집단 간 관계 특성에 따라서 두 단면을 예측하거나 조절하는 요인, 그리고 각 단면이 발현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남한사람들에게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지각은 비교적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남한은 북한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고지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위범주인 한민족의 속성을 떠올릴 때 다수이자 고지위인 남한의 속성이 상위범주를 전형적으로 나타낸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론과 일관되게, 통일독일에서 다수-고지위 집단(서독)과 소수-저지위 집단(동독)이 모두 다수-고지위 집단의 속성이 소수-저지위 집단의 속성보다 상위범주에 대해 전형적이라고 지각했다(Waldzus et al., 2004). 또한, 고지위 집단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혜를 합리화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동기화되며(Jost et al., 2004)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지각을 높게 유지하고자 한다(Wenzel et al., 2017). 다른 한편으로, 전형성 지각과는 달리 어떤 속성이 상위범주를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가에 관한 지각은 하위집단의 규모나 지위와는 독립적이다. 상위범주 표상을 하나의 퍼즐에 비유하면, 퍼즐에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의 조각이라도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논리로 상위범주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소수나 저지위 집단이 지닌 속성 또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지각될 수 있다(Verkuyten et al., 2014). 따라서, 집단 간 관계에서 내집단 투사의 효과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남북한 관계에서 내집단 투사의 지표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지각을 구분하여 함께 다루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관계에서 구성원들이 이중 정체성을 지닐 경우, 즉 상위범주인 한민족과 하위범주인 국가에 동시에 강하게 동일시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내집단 투사가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구성원들이 상위범주에 강하게 동일시하면 하위범주를 인식할 때 상위범주가 중요한 참조점으로 활용되는 한편(Wenzel et al., 2007), 하위범주에 대한 강한 동일시는 내집단의 독특성과 긍정성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유발한다(Tajfel, 1974; Tajfel & Turner, 1986). 이처럼 상위범주가 유의미한 참조집단인 동시에 하위범주 내집단의 독특성과 긍정성을 유지하고자 동기화될 때, 외집단과는 구분되는 내집단의 고유한 속성을 상위범주의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내집단 투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가 약할 경우에는 하위범주 지각에서 상위범주가 유의미한 참조집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적고, 따라서 하위범주에 대한 동일시가 강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내집단 투사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남한 국민들에게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을수록 내집단 투사의 두 단면인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남한 구성원들에게서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을 경우, 남한동일시 수준이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 및 불가결성 지각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남한동일시 수준이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 및 불가결성 지각 수준을 예측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가설 1).

내집단 투사와 남북한 통일태도

남북한 갈등은 장기간 물리적 충돌과 경쟁을 수반한 고착된 갈등(intractable conflict; Bar-Tal, 2000, 2007)이다. 구성원들이 지니는 사회정체성과 그 결과는 고착된 집단 간 갈등상황에서 갈

등 해소와 화해의 심리를 연구하는 문헌에서 핵심적인 변수이다(Baron, 2008; Bar-Tal & Halperin, 2013). 남북한 갈등 해소와 화해는 개별 국가의 인정과 국가연합 체결 등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식 중 하나는 단일 국가로의 통일이다. 한국인들의 일반인식에서도 남북한 통일은 남북한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김범수 등, 2020; 최훈석 등, 2021). 또한, 집단 간 갈등 해소와 화해의 종착점이 협력적 공동체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Kelman, 2008; Nadler, 2012), 남북한 관계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서도 ‘통일’, 즉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요인과 그 기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국내 선행연구에서 남북한 통일태도와 사회정체성 유관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내영(2014)은 통일에 대한 태도를 통일의 당위성(‘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과 실현가능성(‘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지’)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북한과의 민족적 유대감(‘북한을 지원/협력대상으로 보는가’ 혹은 적대/경계/경쟁 대상으로 보는가), ‘북한과 미국의 축구경기에서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인가’의 예측효과를 검증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통일’의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지닌 통일에 대한 표상이 상이했을 가능성이 크고, 예측 및 준거변수의 안면타당도가 낮으며 통일의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을 통일태도의 두 차원으로 규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 윤광일(2017)은 한국인의 국가정체성을 시민정체성(언어/정치제도 수용에 기반한 정체성)과 인종정체성(인종/문화/국적에 기반한 정체성) 차원으로 구분하고, 단일민족 통일국가상에 대한 선호를 시민정체성은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인종정체성은 정적으로 예측함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가정체성을 자발적(시민정체성) 또는 귀속적(인종정체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한민족정체성과 남한정체성의 효과에 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다. 최훈석 등(2019)과 Jung 등(2016)은 축소된 구조에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가 남북한 화해태도 및 행동의도, 그리고 통일태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했으나, 이 연구들에서도 각 변수의 주효과를 검증했을 뿐 두 변수 간 상호작용효과는 검증하지 않았다. 종합하여,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축소된 구조에서 한민족정체성과 남한정체성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이중 정체성과 내집단 투사, 그리고 남북한 통일태도의 관계를 하나의 통합모형 내에서 검증한 시도는 보고된 바 없다.

내집단 투사와 외집단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지각이 하위범주 외집단에 대한 평가나 외집단과의 접촉 의도, 우호적 행동의도, 내외집단 간 차이에 대한 관용을 부적적으로 예측한다(Wenzel et al., 2007, 2017).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 역시 하위범주 외집단에 대한 평가와 외집단 권익 증진에 대한 태도를 부적적으로 예측하였다(Ng Tseung-Wong & Verkuyten, 2010; Verkuyten et al., 2014). 이는 내집단 투사가 발생하면 공동 상위범주에 속하더라도 내집단의 고유한 속성을 공유하지 않는 외집단과의 차이 지각이 우세해지며,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상위범주에 대해 전형적이거나 필수적이라고 지각하는 편향이 내집단의 자격감(entitlement) 경험으로 이어져 하위범주 외집단을 차별하는 경향이 우세해지기 때문이다(Mummendey & Wenzel, 1999; Wenzel, 2004). 따라서, 남북한 관계에서도 내집단 투사가 하위집단 간 통합을 의미하는 남북한 통일태도를 부적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준거변수로 상정하고,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투사를 매개로 남북한 통일태도를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조절된 매개가설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을수록

내집단 투사(남한 상대적 전형성 지각,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 수준이 높고, 내집단 투사의 각 단면이 남북한 통일태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여 이중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매개로 남북한 통일태도를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할 것으로 예상했다(가설 2).

이중 정체성과 내집단 투사의 관계에서 정체성 중심성의 조절효과

Tajfel(1978, p. 63)에 따르면 사회정체성은 “자신이 특정 사회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인식으로, 집단성원으로서 경험하는 정서적 유의미성과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가치 경험을 수반”한다. 이 정의를 토대로 사회정체성 연구자들은 사회정체성을 인지(자기범주화 및 집단성원으로서의 자기인식)와 감정(정서적 유의미성 및 애착), 가치평가(긍정적 가치 경험)를 포함하는 다요인으로 규정한다(참조: Ellemers & de Gilder, 2021). 사회정체성이 다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각 요인의 개념적 독립성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에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Ellemers 등(1999)은 실험에서 내집단의 지위와 규모, 구성방식을 조작했을 때 사회정체성의 인지(self-categorization)와 감정(affective commitment), 가치평가(group self-esteem)의 세 단면이 서로 다르게 영향을 받았음을 관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정체성의 인지 요인은 내집단 규모(다수 vs. 소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가치평가 요인은 내집단의 지위(고 vs. 저) 조작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감정 요인은 내집단 지위와 구성방식(자발적 vs. 비자발적)을 조작했을 때 차이가 나타났다. Jackson(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의 인지, 감정, 가치평가 세 요인 간에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고($r = .44 \sim .53$), 내집단 선호편향은 감정과 가치평가 요인으로 예측되는 반면 집단 소속의 중요성 인식으로 규정된 인지 요인의 예측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Ashmore 등(2004)은 선행연구를 중

합하여 사회정체성이 일곱 개 요인(자기범주화, 내집단 중요성, 내집단 평가, 상호의존성/애착, 내집단 공유 신념, 행동적 개입, 일상 관여도)으로 구분되며, 각 요인이 집단행동(예: 집단 내 시민 행동, 외집단 배척)을 달리 예측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Leach 등(2008)도 사회정체성에서 다요인을 전제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정체성의 다섯 개 요인(만족감, 결속감, 중심성, 자기고정관념, 내집단 동일성)을 구조화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타당화하였다. Roccas 등(2008)은 집단주의, 애국주의 등의 유관 개념을 참조하여 사회정체성을 네 개 요인(내집단 소속감, 중요성, 우월감, 충성심)으로 규정했으며, 각 요인이 상황(예: 집단 지위)이나 개인차(예: 성격)에 따라서 달리 예측되며 준거(예: 집단적 죄책감)에 대한 예측효과도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정체성의 다요인을 가정한 모형들에서 주요 요인으로 일관되게 제시된 두 가지는 내집단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중심성(또는 중요성)이다. 정서적 애착은 내집단에 느끼는 소속감과 만족감을 포함하는 감정 요인을 의미한다. 이중정체성과 내집단 투사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내집단에 대한 애착을 반영하는 집단 동일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정체성의 효과를 분석하였다(예: Verkuyten et al., 2014; Wenzel et al., 2003). 반면 중심성은 자신을 인식하고 정의하는데 있어 해당 사회범주가 우세하게 활용되는 정도 또는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중요성으로, 사회정체성의 인지 요인에 해당한다. 사회정체성의 효과를 검증한 최근 연구들에서 동일시와 중심성은 상관관계는 있지만 서로 독립적인 구성개념임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예: Cameron, 2004; Crane et al., 2018; Jung et al.,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정체성과 내집단 투사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내집단 동일시와 중심성을 구분하여 각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층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내집단 투사가 하위범주 정체성의 독특성과 긍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적 편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위범주가 개인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즉 정체성 중심성이 내집단 투사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층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에 동시에 동일시하더라도 어느 수준의 범주가 자신을 규정하는 데 더 자주 활용되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지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중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서도 하위범주와 상위범주 중심성 수준에 따라서 하위범주가 더 중시되는 성원과 상위범주가 더 중시되는 성원이 존재할 것이다. 이때, 하위범주를 상위범주보다 중시하는 사람들에게서 하위범주 내집단 정체성의 독특성과 긍정성을 유지 혹은 증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내집단 투사를 통해서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자각감을 유지하고자 동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하위범주를 덜 중시하거나 상위범주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위범주 내집단 정체성의 독특성과 긍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내집단 투사가 발현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하는 효과는 상위범주보다 하위범주 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이 높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반면 하위범주 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이 낮을 때는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가설 3).

본 연구의 가설을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조사 개요 및 참가자

연구 참가자는 대한민국 거주 성인(만 19세 이상 만 69세 이하) 1,600명으로,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인구비례할당표집을 이용하여 모집되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2021년 4월 27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진행되었다(응답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45%). 응답자들은 설문조사가 구축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에 참여했다. 연구안내 및 사전동의 후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전체 응답이 완료되면 응답자들에게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되었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수행되었다(KINU-IRB-2021-01-03-HR-01).

측정 도구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집단동일시를 측정하는 Hogg와 Hains(1996)의 척도를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국내 연구(최훈석 등, 2019)에서 변안하여 사용한 네 문항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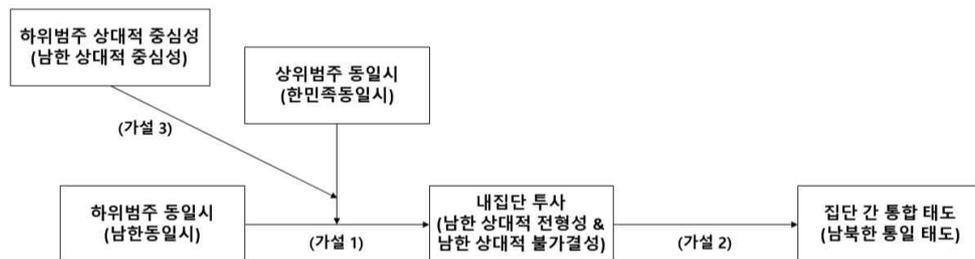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개념모형 및 연구가설

표 1. 인구통계변수에 따른 참가자 분포

	구분	남성	여성	계 (%)
연령	20대 (만 19세-29세)	154	138	292 (18.3)
	30대 (만 30세-39세)	150	141	291 (18.2)
	40대 (만 40세-49세)	180	174	354 (22.1)
	50대 (만 50세-59세)	189	181	370 (23.1)
	60대 (만 60세-69세)	143	150	293 (18.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4	210	364 (22.8)
	전문대 졸업	114	158	272 (17.0)
	대학 졸업	451	352	803 (50.2)
	대학원 졸업 이상	97	64	161 (10.1)
거주지역	서울	150	157	307 (19.2)
	경기/인천	263	250	513 (32.1)
	충청/대전/세종	87	80	167 (10.4)
	전라/광주	77	73	150 (9.4)
	경상/울산/부산/대구	204	192	396 (24.8)
	강원	24	23	47 (2.9)
	제주	11	9	20 (1.3)
가계 월소득 수준	250만원 미만	131	152	283 (17.7)
	250만원-399만원	237	212	449 (28.1)
	400만원-549만원	175	180	355 (22.2)
	550만원-699만원	140	115	255 (15.9)
	700만원 이상	133	125	258 (16.1)
	계(%)	816	784	1,600 (100)

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를 각각 측정하였다(“귀하는 한민족의 구성원/남한 국민으로서 한민족/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니까?”, “귀하는 한민족/남한에 얼마나 동일시한다고 느끼니까?”, “귀하는 당신이 한민족의 구성원/남한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 집니까?”, “귀하는 한민족/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1점 =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7점 = 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분석 시 네 문항의 평균점수를 각각 사용했다(한민족동일시

Cronbach's $\alpha = .96$, 남한동일시 Cronbach's $\alpha = .95$).

한민족정체성 중심성과 남한정체성 중심성

한민족정체성과 남한정체성 중심성을 각 한 문항씩 두 문항으로 측정했다(“귀하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이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하가 남한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점 = 전혀 중요하지 않다, 7점 = 매우 중요하다). 이후 두 응답의 차

이값(남한정체성 중심성 - 한민족정체성 중심성)을 산출하여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 지표로 사용했다.

내집단 투사

내집단(남한)의 상대적 전형성 지각. 내집단 투사를 측정 한 선행연구(Alexandre et al., 2016; Waldzus et al., 2003) 방법에 따라 산출했다. 먼저 두 하위범주(남한과 북한)가 상위범주(한민족)에 대해 얼마나 전형적이라고 지각하는지를 두 문항씩 총 네 문항으로 측정했다("남한/북한과 한민족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남한/북한은 한민족을 잘 대표하는 집단이다", "남한/북한과 한민족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남한/북한은 한민족의 전형적인 집단이다"; 1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점 = 매우 동의한다). 이후 내집단(남한) 전형성 지각과 외집단(북한) 전형성 지각 문항 평균(남한 전형성 지각 Cronbach's $\alpha = .93$, 북한 전형성 지각 Cronbach's $\alpha = .95$) 간 차이값(남한 전형성 - 북한 전형성)을 계산하여 응답자들이 내집단을 상대적으로 더 전형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로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 지각' 지표를 사용했다.

내집단(남한)의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 상위범주(한민족)에 대한 내집단(남한)과 외집단(북한)의 불가결성 지각을 "남한사람들/북한사람들이 빠진 한민족은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다"의 문항으로 물었다(Ng Tseung-Wong & Verkuyten, 2010; 1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점 = 매우 동의한다). 그리고 두 응답의 차이값(남한 불가결성 - 북한 불가결성)을 산출하여 응답자들이 내집단을 상대적으로 더 필수불가결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남한의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 지표를 사용했다.

남북한 통일태도

최훈석 등(2021)이 개발한 남북한 통일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Unification of Korea,

ATU-K)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남북한 통일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태도를 인지(통일이 야기할 결과에 관한 기대와 가치 신념)와 통일에 연합된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의 19문항을 모두 사용해 통일태도를 측정했다(인지 아홉 문항, 정적 정서 다섯 문항, 부정 정서 다섯 문항). 척도의 이론적 가정에 따라 3요인 고정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주 성분분석, Direct Oblimin 회전) 원척도에서 가정하는 인지(예: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와 정적 정서(예: "설렌다", "기쁘다"), 부정 정서(예: "거부감이 든다", "불안하다")의 세 요인이 확인되었다(인지 요인 설명량 54.04%, '부정 정서' 요인설명량 11.76%, '정적 정서' 요인설명량 9.65%). 그리고 세 요인 간 상관은 인지와 정적 정서 $r = .60(p < .001)$, 인지와 부정 정서 $r = -.54(p < .001)$,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 $r = -.55(p < .001)$ 로 나타났다. 이 척도에서는 인지와 정서 요인의 측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인지 요인 점수범위 1점-25점, 정서 요인 점수범위 1점-5점; 인지 요인은 각 문항에 대한 기대와 가치의 응답을 곱하여 산출) 각 문항의 표준화된 점수(Fisher's z-score)를 평균하여 통일태도 총점으로 사용했다(부정 정서는 역점수화, 19개 문항 Cronbach's $\alpha = .91$). 총점이 클수록 통일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결 과

모든 분석에서 IBM SPSS Statistics Ver. 26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 분석에서 예측변수들은 평균중심화(centering)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는 조절변수의 $\pm 1SD$ 지점에서 예측변수의 단순기울기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해석했다(Aiken &

West, 1991). 모든 분석에서 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학력, 가계 월소득 수준)의 효과를 통제했다(인구통계 범주변수를 다음과 같이 지수화함. 성별: 남 = 0, 여 = 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 전문대 졸업 = 2, 대학 졸업 = 3, 대학원 졸업 이상 = 4; 월소득수준: 250만원 미만 = 1, 250만원-399만원 = 2, 400만원-549만원 = 3, 550만원-699만원 = 4, 700만원 이상 = 5).

측정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은 표 2에 제시했다. 한민족동일시($M = 4.60, SD = 1.27$)와 남한동일시($M = 5.07, SD = 1.19$) 모두 척도의 중간점(4점) 이상으로, 응답자들이 한민족과 남한에 대해 다소 강하게 동일시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한중심성($M = 5.09, SD = 1.31$)이 한민족중심성($M = 4.54, SD = 1.45$)보다 높았으며,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M = 0.55, SD = 1.13$)이 0보다 커서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남한정체성을 한민족정체성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단(남한) 상대적 전형성 지각($M = 1.03, SD = 1.51$)과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M = 0.65, SD = 1.31$) 역시 모두 0보다 커서, 응답자들이 외집단(북한)보다 내집단(남한)이 한민족의 전형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한민족을 정의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변수 간 상관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구성개념들의 독립성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참조: Cohen, 1988, 1992). 구체적으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간 상관은 $r = .67, p < .001$, 한민족중심성과 남한중심성 간 상관은 $r = .67, p < .001$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한 상대적 전형성 지각과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 간에도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r = .51, p < .001$. 남한 상대적 전형성과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은 각각 통일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상대적 전형성과 통일태도 $r = -.08, p$

표 2. 변수 간 상관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성별	-	.02	-.14**	-.03	-.04	.04	-.01	.06*	.08**	-.03	.05*	-.11**
2. 연령		-	.06**	-.00	.31**	.30**	.36**	.30**	-.10**	.16**	.07**	.23**
3. 학력			-	.22**	.01	.05	-.01	.01	.02	.01	.02	.11**
4. 월소득수준				-	.00	.04	-.02	.02	.05	.04	.05*	.05*
5. 한민족동일시					-	.67**	.73**	.57**	-.28**	.12**	.03	.43**
6. 남한동일시						-	.56**	.77**	.17**	.28**	.14**	.35**
7. 한민족중심성							-	.67**	-.51**	.05	-.01	.41**
8. 남한중심성								-	.31**	.26**	.15**	.27**
9. 남한상대적중심성									-	.23**	.20**	-.21**
10. 남한상대적전형성										-	.51**	-.08**
11. 남한상대적불가결성											-	-.16**
12. 통일태도												-
평균		44.52			4.60	5.07	4.54	5.09	0.55	1.03	0.65	0.00
(표준편차)		(13.30)			(1.27)	(1.19)	(1.45)	(1.31)	(1.13)	(1.51)	(1.31)	(0.73)

주. $N = 1,600$, * $p < .05$, ** $p < .01$.

= .002; 상대적 불가결성과 통일태도 $r = -.16, p < .001$.

내집단 투사에 대한 이중 정체성의 예측효과

내집단 투사의 두 단면(상대적 전형성 지각과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을 각각 준거변수로 하여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상호작용의 예측효과(가설 1)를 검증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1단계: 인구통계변수, 2단계: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주효과, 3단계: 한민족동일시×남한동일시 상호작용효과 투입) 결과를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내집단(남한)의 상대적 전형성 지각을 한민족동일시가 부적적으로 예측하고, $b = -0.18, SE_b = 0.04, t(1592) = -4.53, p < .001$, 남한동일시는 정적으로 예측했다, $b = 0.47, SE_b = 0.04, t(1592) = 10.98, p < .001$. 보다 중요하게, 가설 1에서 예상했듯이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이 남한 상대적 전형성 지각을 예측하였다, $b = 0.07, SE_b = 0.02, t(1592) = 3.82, p < .001$. 상호작용효과의 해석을 위해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경우 남한동일시의 예측효과(단순기울기)를 검증한 결과, 한민족동일시가 높을 때(+1SD = 1.27)와 낮을 때(-1SD = -1.27) 모두 남한동일시가 남한 상대적 전형성을 정적

표 3. 남한 상대적 전형성 지각에 대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

변수	<i>b</i>	<i>SE_b</i>	<i>t</i>	ΔR^2	<i>R</i> ²
성별	-0.14	0.07	-1.96		
연령	0.01	0.00	3.69**	.027**	
학력	-0.04	0.04	-0.90		
월소득수준	0.03	0.03	1.23		.102**
한민족동일시	-0.18	0.04	-4.53**	.067**	
남한동일시	0.47	0.04	10.98**		
한민족동일시×남한동일시	0.07	0.02	3.82**	.008**	

주. $N = 1,600, * p < .05, ** p < .01$; 표의 회귀계수는 최종 단계(모든 변수 투입) 회귀모형에서의 결과를 표시.

표 4.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에 대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

변수	<i>b</i>	<i>SE_b</i>	<i>t</i>	ΔR^2	<i>R</i> ²
성별	0.11	0.07	1.60		
연령	0.00	0.00	1.59	.012**	
학력	0.01	0.04	0.39		
월소득수준	0.04	0.02	1.72		.037**
한민족동일시	-0.13	0.04	-3.58**	.019**	
남한동일시	0.24	0.04	6.33**		
한민족동일시×남한동일시	0.06	0.02	3.46**	.007**	

주. $N = 1,600, * p < .05, ** p < .01$; 표의 회귀계수는 최종 단계(모든 변수 투입) 회귀모형에서의 결과를 표시.

으로 예측했다, 한민족동일시 고, $b = 0.55$, $SE_b = 0.05$, $t(1592) = 10.51$, $p < .001$; 한민족동일시 저, $b = 0.38$, $SE_b = 0.04$, $t(1592) = 8.82$, $p < .001$ (그림 2). 이 경우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기 때문에, 남한동일시의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지각에 대한 예측효과가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참조: Hayes, 2018, pp. 261-262).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은 한민족동일시가 부적으로 예측하고, $b = -0.13$, $SE_b = 0.04$, $t(1592) = -3.58$, $p < .001$, 남한동일시는 정적으로 예측했다, $b = 0.24$, $SE_b = 0.04$, $t(1592) =$

6.33 , $p < .001$. 또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을 예측하였다, $b = 0.06$, $SE_b = 0.02$, $t(1592) = 3.46$, $p = .001$. 전형성 지각에서와 동일한 방향으로 단순기울기를 검증한 결과, 한민족동일시가 높을 때(+1SD = 1.27)와 낮을 때(-1SD = -1.27) 모두 남한동일시가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을 정적으로 예측했다, 한민족동일시 고, $b = 0.31$, $SE_b = 0.05$, $t(1592) = 6.59$, $p < .001$; 한민족동일시 저, $b = 0.17$, $SE_b = 0.04$, $t(1592) = 4.42$, $p < .001$ (그림 3). 이 결과 역시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기 때문에, 남한동일시의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에 대한 예측효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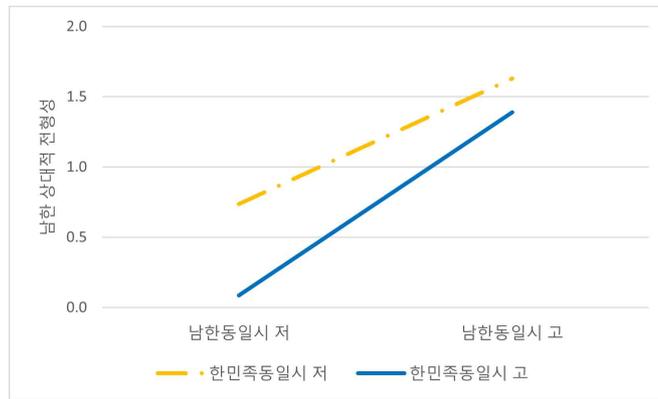


그림 2. 남한 상대적 전형성 지각에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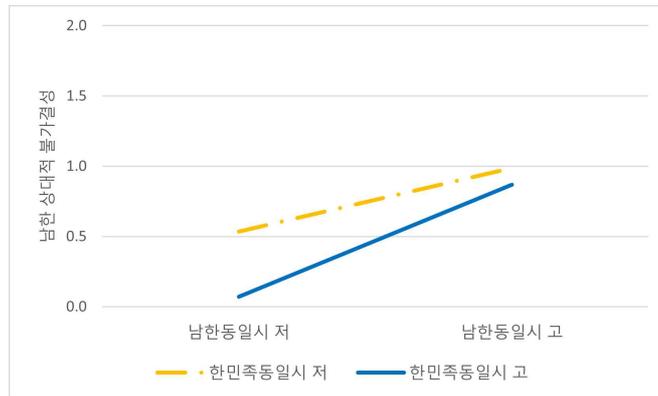


그림 3.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에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설 1)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한민족 동일시 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을 때 남한 동일시가 내집단 투사(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지각)를 정적으로 강하게 예측하였다. 반면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을 때는 남한동일시가 내집단 투사를 예측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는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가 모두 강할 때, 즉 이중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내집단 투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 1과 부분적으로 일관된다.

이중 정체성과 통일태도의 관계에서 내집단 투사의 매개효과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투사의 두 단면을 매개로 통일태도를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했다. 조절된 매개모형은 SPSS 프로그램의 PROCESS macro(Hayes, 2018) model 7을 사용해 검증하였고 통계적 유의도는 bootstrapping 5,000 회 시행을 통해 산출된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이 통일태도를 예측하는 경로에서 남한 상대적 전형성 지각

과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했다(조절된 매개효과), 남한 상대적 전형성의 매개효과 $b = -0.004$, $SE_b = 0.002$, 95% 신뢰구간 [-0.008, -0.002],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의 매개효과 $b = -0.005$, $SE_b = 0.002$, 95% 신뢰구간 [-0.009, -0.001].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한민족동일시가 높거나 낮을 때 ($\pm 1SD$) 남한동일시가 내집단 투사를 매개로 통일태도를 예측하는지를 의미하는 조건별 간접효과(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고,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각 경로계수의 크기와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했다. 경로계수 검증 결과에서는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이 남한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지각을 예측하는 각 경로가 유의했고(가설1 결과 참조), 남한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지각이 각각 통일태도를 부적으로 예측했다, 상대적 전형성 지각 $b = -0.06$, $SE_b = 0.01$, $t(1592) = -4.76$, $p < .001$;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 $b = -0.09$, $SE_b = 0.01$, $t(1592) = -5.96$, $p < .001$. 그리고 조건별 간접효과 검증 결과,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을 때($+1SD = +1.27$)와 낮을 때($-1SD = -1.27$) 모두 남한동일시가 남한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지각을 매개로 통일태도를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했다. 그러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기 때문에, 남한동일시가 내집단 투

표 5.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상호작용이 내집단 투사를 매개로 통일태도를 예측하는 효과(조절된 매개효과)

매개요인	한민족동일시 수준	b	SE_b	95% CI	
				LL	UL
남한 상대적 전형성	한민족동일시 고	-0.034	0.009	-0.054	-0.017
	한민족동일시 저	-0.024	0.007	-0.039	-0.011
	한민족동일시×남한동일시	-0.004	0.002	-0.008	-0.002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한민족동일시 고	-0.027	0.008	-0.044	-0.013
	한민족동일시 저	-0.015	0.006	-0.028	-0.005
	한민족동일시×남한동일시	-0.005	0.002	-0.009	-0.001

주. $N = 1,600$,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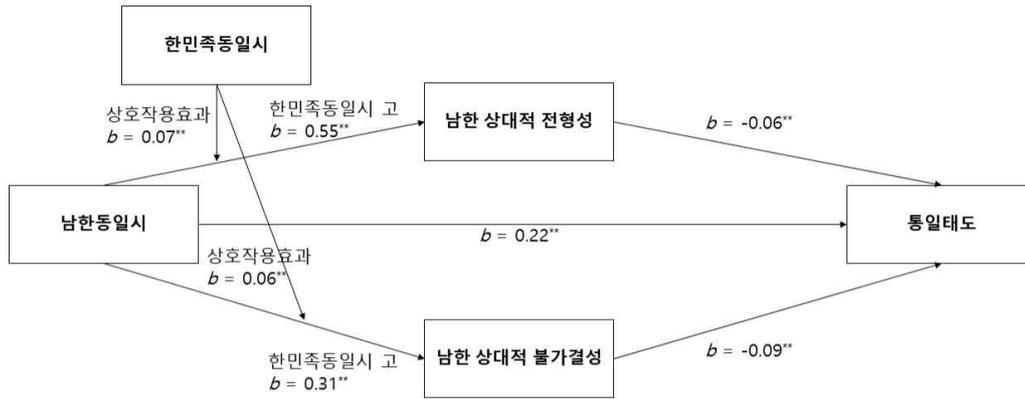


그림 4.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상호작용이 내집단 투사를 매개로 통일태도를 예측하는 효과(가설 2)

주. $N = 1,600$, ** $p < .01$; 남한 상대적 전형성 및 불가결성 요인에 대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 관계수와 한민족동일시가 높을 때 남한동일시의 예측효과계수를 그림에서 표시함.

사의 두 단면을 매개로 통일태도를 예측하는 효과는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을 때 낮을 때보다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Hayes, 2018).

종합하면,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을 때 낮을 때보다 남한동일시가 남한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지각을 매개로 통일태도를 부적으로 강하게 예측했다. 이는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매개로 통일태도를 예측한다는 가설 2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이중 정체성과 내집단 투사의 관계에서 정체성 중심성의 조절효과

내집단 투사의 두 단면에 대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1 단계: 인구통계변수, 2단계: 한민족동일시, 남한동일시,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주효과, 3 단계: 세 예측변수 간 이원상호작용효과, 4단계: 세 예측변수의 삼원상호작용효과 투입) 결과는 표 6, 표 7에 제시했다.

먼저, 남한 상대적 전형성 지각에서 남한동일시와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예측효과가 유의했다, 남한동일시 $b = 0.25$, $SE_b = 0.05$,

$t(1588) = 5.03$, $p < .001$;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 $b = 0.29$, $SE_b = 0.04$, $t(1588) = 7.02$, $p < .001$. 즉 남한동일시 수준과 남한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 상대적 전형성 지각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고, $b = 0.08$, $SE_b = 0.02$, $t(1588) = 4.68$, $p < .001$, 남한동일시와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b = 0.06$, $SE_b = 0.03$, $t(1588) = 1.99$, $p = .047$. 그러나 가설과 달리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삼원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01$, $SE_b = 0.01$, $t(1588) = -0.80$, $p = .426$.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한동일시와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했다, 남한동일시 $b = 0.10$, $SE_b = 0.05$, $t(1588) = 2.29$, $p = .022$;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 $b = 0.18$, $SE_b = 0.04$, $t(1588) = 4.87$, $p < .001$. 즉 남한동일시 수준과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높을수록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고, $b = 0.07$, $SE_b = 0.02$, $t(1588) =$

표 6. 남한 상대적 전형성 지각에 대한 한민족동일시, 남한동일시,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상호작용효과

변수	<i>b</i>	<i>SE_b</i>	<i>t</i>	ΔR^2	<i>R</i> ²
성별	-0.15	0.07	-2.10*	.027**	
연령	0.01	0.00	4.53**		
학력	-0.04	0.04	-0.97		
월소득수준	0.03	0.03	1.07	.101**	.143**
한민족동일시	0.05	0.05	1.04		
남한동일시	0.25	0.05	5.03**		
남한상대적중심성	0.29	0.04	7.02**	.015**	
한민족동일시×남한동일시	0.08	0.02	4.68**		
한민족동일시×남한상대적중심성	-0.03	0.02	-1.28		
남한동일시×남한상대적중심성	0.06	0.03	1.99*	.000	
한민족동일시×남한동일시×남한상대적중심성	-0.01	0.01	-0.80		

주. *N* = 1,600, * *p* < .05, ** *p* < .01; 표의 회귀계수는 최종 단계(모든 변수 투입) 회귀모형에서의 결과를 표시.

표 7.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에 대한 한민족동일시, 남한동일시,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상호작용효과

변수	<i>b</i>	<i>SE_b</i>	<i>t</i>	ΔR^2	<i>R</i> ²
성별	0.10	0.07	1.48	.012**	
연령	0.01	0.00	2.23*		
학력	0.01	0.03	0.36		
월소득수준	0.04	0.02	1.61	.045**	.070**
한민족동일시	0.02	0.04	0.50		
남한동일시	0.10	0.05	2.29*		
남한상대적중심성	0.18	0.04	4.87**	.010**	
한민족동일시×남한동일시	0.07	0.02	4.27**		
한민족동일시×남한상대적중심성	-0.05	0.02	-2.37*		
남한동일시×남한상대적중심성	0.05	0.03	1.78	.004*	
한민족동일시×남한동일시×남한상대적중심성	0.03	0.01	2.56*		

주. *N* = 1,600, * *p* < .05, ** *p* < .01; 표의 회귀계수는 최종 단계(모든 변수 투입) 회귀모형에서의 결과를 표시.

4.27, *p* < .001, 한민족동일시와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b* = -0.05, *SE_b* = 0.02, *t*(1588) = -2.37, *p* = .018. 보다 중요하게,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남한

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b* = 0.03, *SE_b* = 0.01, *t*(1588) = 2.56, *p* = .011. 삼원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고자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수준에 따른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단순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 연구가설과 일관되게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1SD = 1.13)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b = 0.10$, $F(1,1588) = 22.09$, $p < .001$. 반면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서는(-1SD = -1.13)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 = 0.04$, $F(1,1588) =$

3.26 , $p = .071$.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유의한 단순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단순단순기울기를 검증한 결과,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1SD = 1.27)에게서 남한동일시의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에 대한 예측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했고, $b = 0.29$, $SE_b = 0.07$, $t(1588) = 4.01$, $p < .001$,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은 사람들(-1SD = -1.27)에게서는 남한동일시의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에 대한 예측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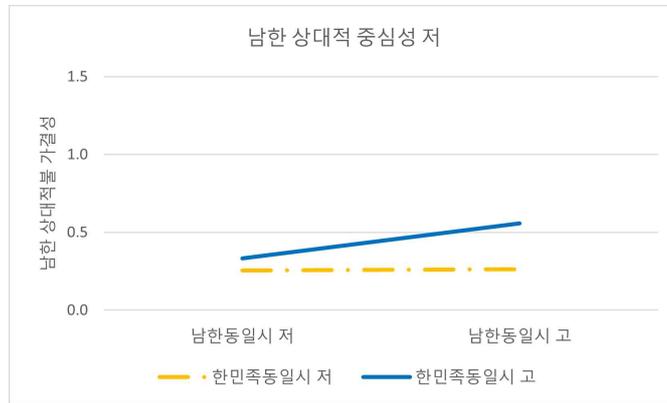


그림 5-1. 남한 상대적 중심성이 낮을 때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에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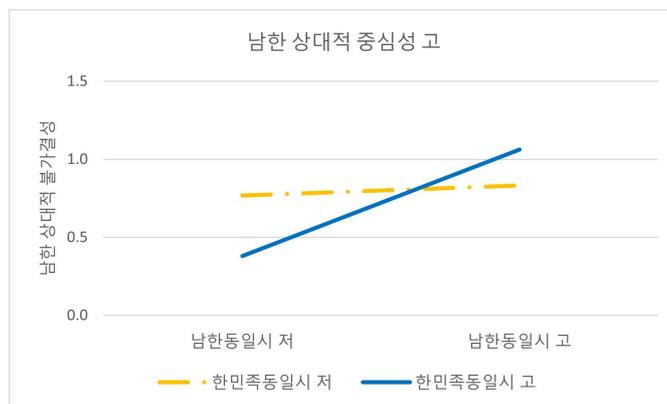


그림 5-2. 남한 상대적 중심성이 높을 때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에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설 3)

0.03, $SE_b = 0.05$, $t(1588) = 0.57$, $p = .566$ (그림 5-1, 5-2).¹⁾

종합하면, 내집단 투사의 두 단면 중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지각에 대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는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 수준과 관계없이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을수록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지각 수준이 높았다. 한편,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에 대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는 한민족정체성보다 남한정체성을 중요시하는 경우 유의한 반면 남한정체성을 비교적 덜 중시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하위범주 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높을 때는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하지만 낮을 때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하는 효과를 하위범주 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이 조절하는 효과에 관한 가설 3은 내집단 투사의 한 단면(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논 의

남북한 관계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을 국가(남한 또는 북한)의 일원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포괄하는 보다 상위수준에서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축소된 사회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하위범주와 상위범주 정체성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축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구성원들이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에 동시에 강하게 동일시하는 경우, 즉 이중 정체성이 우세한 경우, 내집단 투사가 발생하여 남북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니는지 검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를 경감하는 기제로 정체성 중심성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을 때 내집단 투사의 두 단면인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지각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과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지각 모두에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으며,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을 때 남한동일시가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지각을 정적으로 강하게 예측했다. 반면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을 때는 남한동일시가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지각을 예측하는 정도가 약했다.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을 때에도 남한동일시가 내집단 투사를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전

1)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중심성과 남한중심성의 상대적 차이가 이중 정체성의 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여 두 요인의 차이값(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을 조절변수로 사용했다. 그러나 차이값에는 응답자의 실제 남한중심성 수준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예: 한민족중심성 1점과 남한중심성 1점을 보고한 참가자와 한민족중심성 7점과 남한중심성 7점을 보고한 참가자 모두 상대적 중심성 점수는 0이 되기 때문에 남한중심성 수준의 차이가 상쇄됨). 이를 보완하고자 탐색적으로 삼원상호작용효과 검증에서 (1) 남한중심성 원점수를 조절변수로 투입하거나, (2)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을 조절변수로 투입하고 남한중심성 원점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준거변수: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 그 결과, 분석(1)에서는 한민족동일시×남한동일시×남한중심성 간 삼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p = .153$) 결과 양상은 본 연구결과(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을 조절변수로 사용할 경우)와 일관되게 남한중심성이 높은 참가자들에게서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2)에서는 남한중심성의 원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중 정체성 효과에 대한 남한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조절효과(한민족동일시×남한동일시×남한상대적중심성 상호작용)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p = .010$), 본문의 결과와 동일하게 남한상대적 중심성이 높은 참가자들에게서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했지만 남한 상대적 중심성이 낮은 참가자들에게서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본 분석을 제안한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한다.

체 표본에서 상대적 차이에 따라 한민족동일시가 낮은 것으로 분류된 응답자들도 한민족동일시의 절대적 수준은 낮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한민족동일시 $-1SD = 3.33$, $+1SD = 5.87$; 점수 범위 1점-7점). 이 경우 한민족동일시가 낮은 응답자들에게서도 한민족이 남북한을 인식하는 데 일정 정도 참조집단으로 활용되어 남한동일시 수준이 내집단 투사를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유의미하게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관계에서는 상위범주(한민족) 동일시 수준과 관계없이 하위범주(남한) 동일시 수준이 내집단 투사와 직접 상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이중 정체성(상위범주 동일시와 하위범주 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이 아닌, 상위범주 동일시와 하위범주 동일시 중 더 우세한 효과가 다른 효과를 압도하여 내집단 투사를 예측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본 연구에서 남한동일시 평균점수가 한민족동일시 평균점수보다 높았고(표 2 참조), 내집단 투사에 대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주효과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한민족동일시보다 남한동일시의 주효과(예측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표 3, 표 4 참조).

보다 중요하게, 내집단 투사의 두 단면에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으며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을 때 낮을 때보다 남한동일시가 내집단 투사를 강하게 예측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설과 일관되게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가 관찰되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호작용효과에서 단순기울기를 여러 지점에서 검증하는 Johnson-Neyman 검증(Johnson & Neyman, 1936)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지각에서는 한민족동일시의 모든 지점(1점-7점)에서 남한동일시의 단순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앞의 결과에서 보고했듯이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이 유의했으며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동일시의 단순기울기 계수가 컸으므로 이중 정체성 가설과 일관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내집단 투사의 또 다른 지표인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에서는 한민족동일시의 원점수가 2점(약 $-2SD$) 이하부터 남한동일시의 단순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한민족동일시가 약할 때 남한동일시가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에 더해, 가설 2에서 예상했듯이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및 불가결성 지각을 매개로 남북한 통일태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내집단 투사의 두 단면으로 가정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지각이 독립적으로 남북한 통일태도를 예측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뿐만 아니라 불가결성 지각이 남북한 관계에 관한 구성원들의 심리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가설 3으로 설정했던 내집단 투사에 대한 이중 정체성의 예측효과를 조절하는 기제로 정체성 중심성의 역할을 검증한 결과, 구성원들이 상위범주보다 하위범주 정체성을 중시하는 경우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을수록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 수준이 높았다. 반면 구성원들이 하위범주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구성원들에게 하위범주 정체성보다 상위범주 정체성 중심성을 높임으로써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하위범주 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조절효과가 내집단 투사의 두 단면 중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에서 유의하고 상대적 전형성 지각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했듯이, 남한이 북한보다 다수이자 고지위 집단이기 때문에 남한사람들의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지각은 조절 또는 경감되기 어려울 것(Waldzus et al., 2004; Wenzel et al., 2017)을 시사한다.

학술적 및 실용적 함의

공동 내집단 정체성 모형(Dovidio et al., 2007)에서는 이중 정체성이 우세할 때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행동이 예측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상위범주에 강하게 동일시 함으로써 외집단을 공동 내집단으로 인식하게 되고, 동시에 하위범주 내집단에 강하게 동일시함으로써 하위범주 외집단과는 구분되는 내집단의 독특성 욕구도 충족될 것으로 추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과 같이 하위범주가 상위범주에 포섭되는 축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는, 상위범주(한민족) 동일시와 하위범주(남/북한) 동일시가 모두 높을 경우 내집단 투사가 발생하여 남북한 통일에 부정적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집단 투사 모형(Wenzel et al., 2007)과 일관된 결과이며, 상위범주인 한민족에 강하게 동일시하는 것이 오히려 하위범주 외집단인 북한과의 관계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다루어진 공동 상위범주(한민족)에서 분리된 하위범주(남/북한) 간의 관계이자 고착된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 정체성과 내집단 투사, 집단 간 통합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한민족동일시와 국가동일시가 결합될 경우 내집단 투사와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졌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한 성원들에게 국가동일시를 약화해야 하는 것인지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에 관해서는 국가동일시가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예: 국가공동체 약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민족동일시와 국가(남한)동일시 간에 $r = .67$ 의 상관이 관찰되었다. 이는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두 범주에 모두 강하게(또는 모두 약하게) 동일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한은 한민족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해왔다는 점에서도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동일시를 개별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즉,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하나의 정체성은 강화하고 다른 정체성은 약화하는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축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구성원들에게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동일시를 유지 및 강화하면서도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를 줄이고 순기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검증했듯이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를 경감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상위범주 정체성 중심성을 증진하고 하위범주 정체성 중심성의 상대적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하위범주 정체성 중심성의 상대적 수준이 낮을 경우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 지각)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 외에도 내집단 투사를 경감하는 요인으로 외집단 조망 수용(perspective-taking)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외집단에 대한 조망 수용은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지각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Berthold et al., 2013), 이는 외집단의 조망을 수용함으로써 내외집단 간 유사성 지각이 증진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상위범주가 다양한 속성을 지닌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복잡한 표상을 조형함으로써(Ehrke et al., 2014; Peker et al., 2010) 내집단 투사를 줄일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남북한 관계에서 내집단 투사의 작동 기제를 상세히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보다 다양하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제한점 및 장래 과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체성 요인과 내집단 투사 측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소된 구조에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동일시는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각각을 측정하여 이중 정체성의 효과를 검증했다. 그러나 이중 정

체성은 다른 방법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응답자들에게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중 무엇에 더 동일시하는지, 혹은 둘 다 동일시하지 않거나 둘 다 강하게 동일시하는지의 보기 중 선택하도록 하여 응답자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Ng Tseung-Wong & Verkuyten, 2010). 정체성 중심성의 경우 본 조사에서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으나, 이를 여러 문항으로 측정하여 구성개념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 유관요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사회정체성 동일시와 중심성을 구분해서 규정하였을 때 두 단면을 정교하게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척도(예: Leach et al., 2008)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내외집단 전형성과 불가결성 지각은 이를 직접 묻는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측정했으나, 이 외에도 상위범주/하위범주를 상징하는 벤다이어그램 문항을 활용하거나(Waldzus & Mummendey, 2004) 응답자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하위범주의 대표적인 속성들을 제시하고 상위범주에 대한 이들의 전형성 혹은 필수불가결성을 묻는 등(Waldzus et al., 2003) 여러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수렴적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조사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자기보고식 조사연구에서 흔히 관찰되는 공통방법편향이 본 연구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자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분석에서 사용된 전체 문항이 일곱 개 다요인으로 구성되며 단일요인 설명변량은 39.64%로 절반을 넘지 않아 공통방법편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Podsakoff et al.,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수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실험연구를 통한 반복검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실험실에서 하위범주 혹은 상위범주의 우세성을 집화하거나(예: Kramer & Brewer, 1984) 내집단동일시 수준을 조작(예: Roccas et al., 2006, 연구 2)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이중 정체성과 내집단 투사가 남북한

통일태도뿐만 아니라 실제 구성원들의 통일 관련 행동(예: 대북교류 서명운동에 참여, 정부의 통일정책 지지; 이하연 등, 2021; 최훈석 등, 2021)을 예측하는지 연구모형을 확장하여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집단 간 화해 및 통합 과정에서 갈등의 심화 혹은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변수들(예: 외집단 신뢰, 공감 등; Noor et al., 2008)을 포함하여 연구모형화 하고 검증하는 작업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정체성 기제 외에도 남북한 통일태도 또는 통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예: 사회적 신념, 진보-보수 정치성향 등; 이하연 등, 2021)을 분석에 포함하여 해당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도 사회정체성의 효과가 유의한지, 또는 예측 효과가 큰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작업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남북한처럼 집단 간 고착된 갈등 관계에서는 구성원들에게 갈등과 연합된 심리요인들이 다원화되어 작동한다(Bar-Tal & Halperin, 2011)는 점에서, 이러한 다변량 연구들은 남북한 갈등과 통합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실용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저자소개

이하연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집단 창의성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최근 주요 연구주제는 집단 간 고정관념 및 편견, 공감,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집단 간 연대행동과 남북한 관계 등이다.

권영미는 Washington State University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집단 규범 및 집단 교정 행동, 집단 역동 등이 있다.

서정길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집단 의 사결정 및 동기 손실 등 집단 수행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최근에는 팀 학습과 지식 공유 등 집단의 기능 증진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박주화는 브라운대학교 인지과학과(Cognitive, Linguistics, and Psychological Science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화해, 이념갈등, 통일 및 남북관계 등이다.

최훈석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집단 과정 및 집단 간 관계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의 시너지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 효과성, 집단 간 화해와 갈등해소, 집단에서 의(義)와 충(忠)의 발현, 개인과 집단의 공동번영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범수, 김병로, 김학재, 김희정, 박원호, 이종민, 최규빈, 임경훈, 최현정 (2021). 2020 통일의 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 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8). 2018년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서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박주화, 강혜석, Steven Sloman, Eran Halperin, Babak Hemmatian, Nimrod Nir (2020).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박주화, 이민규, 최훈석, 권영미, Steven Sloman,

Eran Halperin (2019).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유연재, 김혜숙 (2000). '한집단' 범주의 점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91-112.

윤광일 (2017). 한국인 국가정체성의 정치심리학. 문화와 정치, 4(4), 5-41.

이내영 (2014).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평화연구, 22(1), 167-206.

이하연, 최훈석, 권영미, 박주화 (2021). 사회적 신념 및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 조절 및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5(4), 27-47.

최훈석, 이하연, 권영미, 박주화 (2021).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259-284.

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층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4), 45-59.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Alexandre, J. D., Waldzus, S., & Wenzel, M. (2016). Complex inclusive categories of positive and negative valence and prototypicality claims in asymmetric intergroup rel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5, 457-483. <https://doi.org/10.1111/bjso.12148>

Ashmore, R. D., Deaux, K., & McLaughlin-Volpe, T. (2004). An organizing framework for collective identity: Articulation and significance of multidimension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30, 80-114. <https://doi.org/10.1037/0033-2909.130.1.80>

Baron, R. M. (2008). Reconciliation, trust, and cooperation: Using bottom-up and top-down strategies to achieve peace i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n A. Nadler, T.

- Malloy, & J. D. Fisher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pp. 275-298). Oxford University Press.
- Bar-Tal, D. (2000). From intractable confli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Psychologic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21*, 351-365. <https://doi.org/10.1111/0162-895X.00192>
- Bar-Tal, D. (2007).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 1430-1453. <https://doi.org/10.1177/0002764207302462>
- Bar-Tal, D., & Halperin, E. (2011).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In D., Bar-Tal (Ed.), *Intergroup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pp. 217-240). Psychology Press.
- Bar-Tal, D., & Halperin, E. (2013).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L. Huddy, D. O. Sears, & J. S. Levy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pp. 923-956). Oxford University Press.
- Berthold, A., Leicht, C., Methner, N., & Gaum, P. (2013). Seeing the world with the eyes of the outgroup—The impact of perspective taking on the prototypicality of the ingroup relative to the outgroup.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 1034-1041. <https://doi.org/10.1016/j.jesp.2013.07.007>
- Cameron, J. E. (2004). A three-factor model of social identity. *Self and Identity, 3*, 239-262. <https://doi.org/10.1080/13576500444000047>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ural sciences* (2nd ed.). Academic Press.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 155-159. <https://doi.org/10.1037/0033-2909.112.1.155>
- Crane, M. F., Louis, W. R., Phillips, J. K., Amiot, C. E., & Steffens, N. K. (2018). Identity centralit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of group-based stressors and well-be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8*, 866-882. <https://doi.org/10.1002/ejsp.2367>
- Crisp, R. J., & Hewstone, M. (2007). Multiple social categorization.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9, pp. 163-254). Elsevier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6\)39004-1](https://doi.org/10.1016/S0065-2601(06)39004-1)
- Dovidio, J. F., Gaertner, S. L., & Saguy, T. (2007). Another view of “we”: Majority and minority group perspectives on a common ingroup identity.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8, pp. 296-330). Taylor & Francis. <https://doi.org/10.1080/10463280701726132>
- Ehrke, F., Berthold, A., & Steffens, M. C. (2014). How diversity training can change attitudes: Increasing perceived complexity of superordinate groups to improve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3*, 193-206. <https://doi.org/10.1016/j.jesp.2014.03.013>
- Ellemers, N., & de Gilder, T. C. (2021). Categorization and identity as motivational principles in intergroup relations. In P. A. M. Van Lange, E. T. Higgins, &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3rd ed., pp. 452-472). Guilford Press.
- Ellemers, N., Kortekaas, P., & Ouwerkerk, J. W. (1999). Self-categorisation, commitment to the group and group self esteem as related but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371-389. [https://doi.org/10.1002/\(SICI\)1099-0992\(199903/05\)29:2/3<371::AID-EJSP932>3.0.CO;2-U](https://doi.org/10.1002/(SICI)1099-0992(199903/05)29:2/3<371::AID-EJSP932>3.0.CO;2-U)
- Gaertner, S. L., Dovidio, J. F., Anastasio, P. A., Bachman, B. A., & Rust, M. C. (1993).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Recategorization and the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4*, 1-26.

- <https://doi.org/10.1080/14792779343000004>
- Gaertner, S. L., Mann, J., Murrell, A., & Dovidio, J. F. (1989).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39-249.
<https://doi.org/10.1037/0022-3514.57.2.239>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ogg, M. A., & Hains, S. C. (1996).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solidarity: Effects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ocial beliefs on depersonalized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295-309.
<https://doi.org/10.1037/0022-3514.70.2.295>
- Jackson, J. W. (2002). Intergroup attitudes as a function of different dimensions of group identification and perceived intergroup conflict. *Self and Identity*, 1, 11-33.
<https://doi.org/10.1080/152988602317232777>
- Johnson, P. O., & Neyman, J. (1936). Tests of certain linear hypotheses and their application to some educational problems. *Statistical Research Memoirs*, 1, 57-93.
- Jost, J. T., Banaji, M. R., & Nosek, B. A.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 881-919.
<https://doi.org/10.1111/j.1467-9221.2004.00402.x>
- Jung, J., Hogg, M. A., & Choi, H-S. (2016).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Psychology*, 37, 341-350.
<https://doi.org/10.1111/pops.12252>
- Jung, J., Hogg, M. A., & Lewis, G. J. (2018). Identity uncertainty and UK-Scottish relations: Different dynamics depending on relative identity centrality.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1, 861-873.
<https://doi.org/10.1177/1368430216678329>
- Kelman, H. C. (2008). Reconciliation from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In A. Nadler, T. Malloy, & J. D. Fisher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pp. 15-32). Oxford University Press.
- Kramer, R. M., & Brewer, M. B. (1984). Effects of group identity on resource use in a simulated commons dilem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044-1057.
<https://doi.org/10.1037/0022-3514.46.5.1044>
- Leach, C. W., van Zomeren, M., Zebel, S., Vliek, M. L. W., Pennekamp, S. F., Doosje, B., Ouwerkerk, J. W., & Spears, R. (2008). Group-level self-definition and self-investment: A hierarchical (multicomponent) model of in-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144-165.
<https://doi.org/10.1037/0022-3514.95.1.144>
- Mummendey, A., & Wenzel, M. (1999). Social discrimination and tolerance in intergroup relations: Reactions to intergroup dif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 158-174.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302_4
- Nadler, A. (2012). Intergroup reconciliation: Definitions, processes, and future directions. In L. R. Tropp (Ed.),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pp. 291-308). Oxford University Press.
- Ng Tseung-Wong, C., & Verkuyten, M. (2010). Intergroup evaluations, group indispensability and prototypicality judgments: A study in Mauritiu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3, 621-638.
<https://doi.org/10.1177/1368430210369345>
- Noor, M., James Brown, R., & Prentice, G. (2008).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 481-495.
<https://doi.org/10.1348/014466607X238751>
- Oakes, P. J., Haslam, S. A., & Turner, J. C. (1998). The role of prototypicality in group influence and cohesion: Contextual variation in the graded structure of social categories. In S. Worchel, J. F. Morales, D. Paez, & J.-C. Deschamps (Eds.), *Social ident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75-92). Sage.
- Peker, M., Crisp, R. J., & Hogg, M. A. (2010). Predictors of ingroup projection: The roles of superordinate category coherence and complexity.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3, 525-542.
<https://doi.org/10.1177/1368430209360205>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Y., & Podsakoff, N. P.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 879-903.
<https://doi.org/10.1037/0021-9010.88.5.879>
- Roccas, S., Klar, Y., & Liviatan, I. (2006). The paradox of group-based guilt: Mod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conflict vehemence, and reactions to the in-group's moral vio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698-711.
<https://doi.org/10.1037/0022-3514.91.4.698>
- Roccas, S., Sagiv, L., Schwartz, S., Halevy, N., & Eidelson, R. (2008). Toward a unifying model of identification with groups: Integrating theoretical perspec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 280-306.
<https://doi.org/10.1177/1088868308319225>
- Tajfel, H. (1974).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ur. *Social Science Information*, 13, 65-93.
<https://doi.org/10.1177/053901847401300204>
- Tajfel, H. E.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cademic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86).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G. A. Williams & W. Stephe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276-293). Nelson Hall.
- Turner, J. C. (1987). A self-categorisation theory. In J. C. Turner, M. A. Hogg, P. J. Oakes, S. D. Reicher, & M. S. Wetherell (Eds.),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sation theory* (pp. 42-67). Blackwell.
- Turner, J. C., & Reynolds, K. J. (2012). Self-categorization theory. In P. A.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399-417). SAGE Publications Ltd.
- Verkuyten, M., Martinovic, B., & Smeekes, A. (2014). The multicultural jigsaw puzzle: Category indispensability and acceptance of immigrants' cultural righ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 1480-1493.
<https://doi.org/10.1177/0146167214549324>
- Waldzus, S., & Mummendey, A. (2004). Inclusion in a superordinate category, in-group prototypicality, and attitudes towards out-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466-477.
<https://doi.org/10.1016/j.jesp.2003.09.003>
- Waldzus, S., Mummendey, A., Wenzel, M., & Boettcher, F. (2004). Of bikers, teachers and Germans: Groups' diverging views about their prototypical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 385-400.
<https://doi.org/10.1348/0144666042037944>
- Waldzus, S., Mummendey, A., Wenzel, M., & Weber, U. (2003). Towards tolerance: Representations of superordinate categories and perceived ingroup prototypic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31-47.
[https://doi.org/10.1016/S0022-1031\(02\)00507-3](https://doi.org/10.1016/S0022-1031(02)00507-3)

- Wenzel, M. (2004). A social categorisation approach to distributive justice.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5, pp. 219-257). Taylor & Francis.
<https://doi.org/10.1080/10463280440000035>
- Wenzel, M., Mummendey, A., & Waldzus, S. (2007). Superordinate identities and intergroup conflict: The ingroup projection model.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8, pp. 331-372). Taylor & Francis.
<https://doi.org/10.1080/10463280701728302>
- Wenzel, M., Mummendey, A., Weber, U., & Waldzus, S. (2003). The ingroup as pars pro toto: Projection from the ingroup onto the inclusive category as a precursor to social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461-473.
<https://doi.org/10.1177/0146167202250913>
- Wenzel, M., Waldzus, S. & Steffens, M. C. (2017). Ingroup projection as a challenge of diversity: Consensus about and complexity of superordinate categories. In Chris G. Sibley, Fiona Kate Barlow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prejudice* (pp. 65-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 차원고접수 : 2022. 08. 01.
수정원고접수 : 2022. 11. 05.
최종게재결정 : 2022. 11. 10.

Relationship Between Dual Social Identity, Ingroup Projection, and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of Korea

Hayeon Lee¹ Young-Mi Kwon¹ Jeong-Gil Seo¹ Juhwa Park² Hoon-Seok Choi¹

¹Sungkyunkwan University

²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ual social identity, ingroup projec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unification of Korea. We hypothesized that South Koreans who are characterized as having dual social identity, namely, those who identify themselves strongly with both the superordinate category (i.e., ethnic identity) and the subordinate category (i.e., national identity), would show high levels of ingroup projection, which in turn would predict negatively their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n addition, we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entrality of the superordinate and the subgroup 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ual identity and ingroup projection. Data from a stratified sample of South Korean adults ($N = 1,600$) revealed that, as expected, ingroup projection negativ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u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the unification of Korea. Importa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dual identity and ingroup projection was attenuated among those who perceived their superordinate identity as a more central aspect of themselves than their subgroup identit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for the role of social identity in social integration research in the context of the unification of Korea.

Keywords : dual social identity, ingroup projection, relative ingroup prototypicality, relative ingroup indispensability,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of Korea